

1. 영국 81살 할머니 이집트 35살 남성 결혼..."너무 사랑해"

송고시간 2020-11-11 10:06



김대호 기자

가 낚섯 "적대 도 영국 국전 취드 못전 아니야"
나 할머니도 영국 수급자로 부유하지 무해



아이리스 존스/외썩아 모함마드 아흐메드 이브라히

조스 페이스부 재파매 대 DR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영국의 81 살 할머니와 이집트의 35 살 청년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랑을 키워오다 결혼까지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1 일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영국 남서부의 서머셋 출신인 아이리스 존스 할머니와 이집트 카이로에 사는 무함마드 아흐메드 이브라힘은 최근 46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들은 작년 여름 페이스북의 무신론 탐구 그룹에 참여하며 처음 알게 됐다.

'임플란트' 비쌀 필요 없다

40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비용 부담 많이 줄어...

이브라힘은 SNS 를 통해 처음 사랑을 고백했고 작년 11 월 카이로 공항에서 직접 존스를 보고 자신의 사랑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존스를 처음 본 순간 매우 긴장됐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꼈으며, 이런 여성을 알게 돼 너무 운이 좋았다"고 회상했다.

용접 일을 하는 이브라힘은 존스가 카이로를 방문한 후 일도 포기하고 그녀와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리스 존스(왼쪽)와 모하메드 아흐메드 이브라힘

존스 페이스북 재파매 및 NR 금지

2 명의 여동생과 1 명의 남동생, 그리고 부모와 함께 방 3 개짜리 집에 함께 사는 이브라힘은 그러나 존스와의 만남에 돈이나 영국 국적 취득 같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다.

이브라힘은 "존스가 어디에 살건, 얼마나 부자인지, 아니면 가난한지 상관없다. 나는 단지 그녀와 함께 있기는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이유로 그녀를 만난다고 생각한다"면서 "영국이 아름다운 곳이고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지만 어디에 살지는 결국 존스가 정할 것이고 나는 이 세상 어디든지 그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청소부 출신으로 40 여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아온 존스는 현재 22 만파운드(3 억 3 천만원)의 단층집에 살며, 매주 30 만원의 연금과 장애 급여를 받고 있다.

존스는 이브라힘을 만나러 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브라힘은 존스를 집으로 데려가 부모에게 인사시켜주고 저녁 식사를 대접했으며, 존스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존스는 이브라힘의 어머니보다 20 살이나 많다.

그의 어머니도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는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 지내길 원한다는 게 이브라힘의 설명이다.

이브라힘을 만난 후 이슬람으로 개종한 존스는 한 방송에 출연해 "35 년간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를 만나고 다시 처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면서 "우리는 격정적으로 사랑한다"며 결혼 사실을 밝혔다.

이브라힘은 "어머니보다 몇십년이나 더 나이가 많은 아내를 갖는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사랑이다.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사랑에 빠지면 여성의 나이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리스 조시/오르쥬아 브하마드 아흐메드 이브라히
존스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